
인도 농촌사회 연구에 대한 소고

—촌락연구를 중심으로

김경학*

1. 머리말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적 식민지 경험을 하였으며 농업이 그들의 경제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립 후 각국은 경제개발계획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추구에 열을 올린 것 또한 사실이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에서 인도 대륙은 여러 면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우선 인도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다양한 언어, 인종, 종교 등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와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인류학도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는 곳임에 틀림이 없

*인도 네루대학 박사과정

다.

과거의 인도였던 파키스탄, 방글라데쉬는 물론이거니와 인근의 네팔, 스리랑카 등의 서아시아에서 인도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역할과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게다가 식민지 경험의 소산이겠지만,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인도인과 인도문화가 숨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착지의 문화와 융화·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사회가 겪는 사회문화적 변동에 대한 규명에 부분적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까지도 인도인의 약 3분의 2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이 그들의 생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 인간과 토지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도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한 가지로 토지를 매개로 하고 있는 인도 농촌부분의 이해를 들 수 있다. 인도의 농촌부분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작은 촌락(village)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글은 인도 국내학자 및 외국학자들의 인도촌락(village)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인도 농촌사회의 일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인도 촌락의 ‘자급자족’이라는 신화

인도 인류학의 시작과 발달은 영국식민지 경험과 독립 후, 서구 특히 영, 미 인류학자들의 공헌, 그리고 후세대 인도학자들의 토착화 작업의 연속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시대의 영국 행정관리, 학자, 여행자들이 인도를 방문한 후에, 그들에 의해 인도 사회는 다른 세계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인도에 대한 시각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채색되었기 때문에 해방 후 대다수의 인도 연구가들에 의해 비판적 평가

를 받아 왔다. 예컨대, 마르크스(Marx)는 인도 촌락사회를 현존하는 원시공산사회의 원형으로 생각했으며, 그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메인(Main 1871) 또한 인도 촌락사회에 토지 소유의 개념이 없음을 근거로, 인도촌락사회를 ‘공산사회’로 단정지었으며, 더 나아가 소위 법의 유아기적 단계의 특성, 즉 공유권의 만연,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의 혼돈 등을 인도 촌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트칼페(Metcalf 1830)는 인도 촌락사회를, 외부의 어떠한 도움 없이 자체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족적인(self-sufficient) ‘작은 공화국(little republic)’으로 표현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마르크스, 메인을 비롯한 그 당시 학자와 행정관리들은 인도 촌락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당시 팽배했던 지적 전통인 진화론적 사고와 인도 통치를 위한 자본과 인력부족에서 오는 영국식민지 행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콘(Cohn 1988)은 영국 식민지 행정부가 식민통치에 소요되는 경비절감을 위해 ‘작은 공화국’이라는 낭만적인 이미지를 창조했었다고 비난했다. 그 후 식민지 정부관리들, 마르크스, 메인 등의 인도 촌락사회에 대한 시각은 인도독립운동가들에게, 특히 간디(Gandhi)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스리니바스(Srinivas 1987)에 의하면, 간디는 촌락을 인도인의 삶의 핵심부로 인식하여, 인도 사회 재건을 위해서 촌락 수준의 수공업, 촌락 판차야트(Panchayats : 촌락 단위의 의회로서 인도행정기구의 가장 기초단위)의 부활 및 발전을 강조하였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독립 전까지 인도 인류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인도 각지에 산재하는 부족사회에 대한 연구였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촌락연구들은 독립 후부터야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50년대 초반, 특히 1955년은 인도 촌락사회 연구에 큰 의미있는 해였다. 두베(Dube 1955), 매리어트(Marriot), 스리니바스(Srinivas 1955), 마줌다르(Ma-

jumdar 1955)에 의해 인도 촌락사회에 관련된 책들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인도 독립 직후 촌락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 중의 하나로, 미국 인류학자 레드필드(Redfield)의 공헌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아시아에서 그들의 영향력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미 행정부는 인도 사회가 제2의 중국이 되지 않도록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예컨대 농업기술향상, 토지개혁, 인력개발, 빈곤과 무지타과 등에 많은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발전계획의 기초단위는 농촌 촌락사회였고 당시 레드필드는 멕시코 촌락을 현지조사하여 ‘농민사회’, ‘농민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하여 싱어(Singer, M.), 매리어트(Marriot)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를 인도 촌락연구로 쉽게 유도할 수 있었다. 그들의 중심 논지는 인도의 촌락사회가 결코 자급자족적이거나 고립되고 정체적인 단위가 아니며, 인근의 다른 촌락들과 더 나아가 도시 영역과도 상호관계를 갖는 단위라는 것이다.

자급자족 단위라는 신화를 반박할 만한 수많은 촌락 연구들이 있었다. 우선, 농촌-도시간, 농촌 상호간의 이주(migration)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지난날 아시아 농민사회는 정체된 사회라는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었다. 그러나 인도 촌락사회는 식민지 시대 이전에도 정체된 사회가 결코 아니었다. 영국 식민지 정부는 황마, 면화, 피혁 등 원자재를 본국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품목과 관련된 공장들이 대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인근에도 많이 세워졌다. 대부분의 공장노동자들이 농촌촌락에 동원되었다. 또한 인도 통치를 위한 행정부 건물의 공사 현장, 항구의 하역 작업장 등, 소위 비공식 부문에는 비숙련 떠돌이 농촌출신 노동자들이 붐비었다. 쿨리(coolie: 원 의미는 짐을 나르는 자)라 불리는 이들은, 당시 농촌의 피폐와 대지주의 횡포로 인해 토지에서 밀려난 소작인과 농업노동자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인도 농촌부문의 정체성이란 개념에 반박하며, 브레만(Breman 1984)은 식민지 시대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

들의 농촌으로부터 국내의 플랜테이션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플랜테이션 현장으로 이주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빚으로 인한 속박 노동자(bonded labourers)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촌락의 정체라는 속성을 부정하는 다른 근거로서, 계절이주민(seasonal migrants)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보통 이들은 임노동자로 사탕수수, 밀 등의 수확 시기에 맞춰 다른 농촌 촌락으로 집단 이주하며, 농한기에는 인근의 벽돌 공장 등 소규모 가내공장에서 일하다, 다시 몬순 계절이 오면 농업노동자로 복귀하는 속성이 있다.

자급자족의 신화를 부정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촌락경제의 자급자족 가능성에 대해 흔히 드는 근거로서 인도촌락이 카스트에 따라 직업이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 촌락들 내에 필요한 장인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의례집전자, 세탁인, 청소부, 이발사 등)이 살고 있어 외부의 도움 없이 그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도 촌락에 촌락민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카스트가 살고 있지 않으며 상당 종류의 카스트들은 필요에 따라 다른 촌락에서 초청된다. 아와 같은 촌락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오플러(Opler)는 '작업공동연합체(work pool)'라고 표현했다. 이밖에도 주 정기시장의 존재, 촌락외부혼의 원칙(특히 북부인도), 힌두들의 성지순례 등을 통해 인도 촌락은 결코 사회경제적으로 폐쇄되고 정체되어 있을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소위 '작은 공화국'이라는 표현에는 촌락들이 정기적인 조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중앙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홍망과는 모든 면에서 무관하며 자율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지적하듯 인도 촌락들은 중앙권력과 관계시설, 도로건설 등 긍정적인 측면과 재산과 농산물의 약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빈번한 상호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다.

한 마디로, 인도촌락의 '자급자족'이니 '정체'니 '고립'이니 하는 신화는 해방 후 집중적인 현지조사들이 철저히 부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촌락 연구의 단위에 관해, 두몽과 포코크(Dumont & Pocock)는 일부 인도 촌락 연구자들이 연구단위로 채택한 촌락(village)은 단순히 건축학적·인구학적인 의미의 단위일 뿐 사회적 실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신 집단간의, 개인간의 관계가 담겨 있는 '카스트'를 연구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베일리(Bailey 1959)의 반론제기 등 사회인류학과 사회학 내에서 촌락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3. 카스트 상호간의 관계와 자즈마니 체계 (Jajmani System)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촌락연구들은 특정 촌락 내에서 카스트간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위계, 분파주의, 리더십, 자즈마니 관계, 친족 관계 등이라는 주제로 연구했다. 일반적으로, 카스트는 지리적 혹은 공간적 맥락에 따라 그 관계가 결정된다. 예컨대 스리니바스(Srinivas 1952)에 따르면, 동일 촌락 내에서는 상이한 카스트간의 수직적 결속력(vertical solidarity)이 강조되며, 반면 상이한 촌락들간에는 동일 카스트(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하위카스트 'sub-caste'를 말한다)간의 수평적 결속력(horizontal solidarity)이 강조된다고 한다. 동일 주제에 대한 메이어(Mayer 1960)의 표현에 의하면, 촌락 내에서는 다른 카스트간의 관계가 강조되어, 부계친족간의 관계가 중시되고, 촌락간의 관계에서는 하위카스트간의 관계가 강조되어 인척간의 관계가 부각된다.

대부분의 촌락연구들이 한 개의 촌락을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촌락의 화합이나 일치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달리 말하면, 카스트가 촌락 내의 카스트들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형성시켜 촌락 전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유기체적 체계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베일리(Bailey 1963), 리치(Leach 1960) 등은 카스트를 상이한 카스트들간에 경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경쟁과 분쟁의 소지는 하층카스트의 노동력이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배적인 동일 상층카스트 내에서 발견된다는 데 일치를 보인다.

1) 카스트의 정치적 측면

인도 촌락의 권력관계 연구에 유용하여 연구들에 자주 등장되는 개념으로 스리니바스(1955)의 '지배적 카스트(dominant caste)'라는 것이 있다. 이 개념의 유래는 아프리카 정치체계를 분석하는 개념이었던 '지배적 부족'으로부터라 알려져 있다.

스리니바스에 따르면, 특정 카스트가 수적으로, 경제·정치적으로 타 카스트에 우월하며, 어느 정도 높은 의례적 위치에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 '지배적 카스트'가 될 수 있다. 물론, 지배적 카스트의 준거와 그 개념상의 적합성에 대해서 이견도 많지만 그의 모델은 지배적 카스트들이 촌락의 공식적, 비공식적 리더십을 획득, 유지시키기 위해 그들의 고객적인 하층 카스트를 두고 경쟁하는 맥락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리치(Leach 1960) 또한 스리니바스 주장에 동의하면서, 카스트가 계급(class)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계급의 개념에는 지위와 경제적 안전도(security)가 비례하는 반면 카스트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베일리(Bailey 1963)는 카스트의 제 특성으로 출생적 귀족, 세습적 전문성, 카스트간의 상호의존성과 협조로 열거하면서 카스트 체계를 '폐쇄된 유기체적 계층체계'라 정의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의 카스트 구조의 변동에 대해서, 더 이상 카스트 제도는 카스트 제 측면들이 상호 조화로운 화합상태가 아니라고 했다. 즉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카스트들간의 관계에 있어, 특정 카스트가 경제적, 정치적, 의례적인 우월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베일리(1957)는 오리사(Orissa) 주의 비시파라(Bisipara)라는 촌락의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영국 식

민지 정부의 주류에 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술을 제조하는 두 하층카스트의 부의 축적이 가능하여졌다. 힌두 전통에 술은 오염된 물질이기 때문에 술을 제조하는 카스트는 낮은 카스트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토지는 이 지역의 무사카스트(warriors)의 것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warriors는 지배적이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두 하층카스트는 토지를 구입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어 산스크리트화(sanskritization: 스리니바스의 개념으로, 하층카스트나 부족집단이 자신들의 지위의 상향이동을 위해, 재생족, 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의 관습, 이념, 가치, 생활습성 등을 모방하는 과정을 말함) 과정을 통해 의례적 지위까지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목격한 후, 베일리는 촌락 사회구조의 일치나 균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촌락내의 수직적인 정치적 위계가 약화되는 반면 촌락간의 수평적 관계가 강화되어 비록 하위카스트(sub- caste)는 다르지만 지역적 상이함을 넘어 상호결합을 통해 정치적 세력 강화를 꾀하려는 '카스트 연합(caste association)'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일리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균형모델(equilibrium model)이 안고 있는 모순을 그의 분석 역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비시파라 촌락의 사회변동 원인으로 식민지 정부의 정책, 시장경제의 도입 등 외부적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적 외압이 없었던 식민지 전(前)시대의 사회구조를 정체된 실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전시대인 무굴제국 하에서 촌락들의 사회구조가 결코 정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역사적 연구(Thapar, Stein, Panikkar)가 입증하고 있다. 브레만(1984) 역시 식민지 전시대에 지주와 무토지 농업노동자들 사이에는 상호 관계변화를 일으킬 만한 긴장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고 지적한다.

2) 카스트의 경제적 측면

인도의 촌락경제는 카스트에 따라 노동이 분화되었고, 장인카스트(목수, 대장장이, 도공 등), 서비스카스트 그리고 농민간의 상호의존으로 설명된다. 카스트의 경제적 측면을 다룬 많은 촌락연구들에서는 또한 자즈마니 체계는 '상호의존성'과 '착취'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되어 왔다. 자즈마니 체계는 자즈만(jajman)과 카민(kami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농민카스트, 후자는 제공카스트 혹은 장인카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와이서(Wiser 1969)의 자즈마니 체계 정의에는 자즈만과 카민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즈만과 카민의 상호관계는 평등과 호혜성에 기반하고 있다. 굴드(Gould 1958)는 자즈마니 체계를 의사친족(fictive kinship) 관계를 통하여 소위 재생 카스트(브라만, 크샤트리야, 바이샤)의 의례적 청결성을 유지시키고, 카스트에 따른 노동분화를 영구화시켜 촌락사회의 기능적 통합을 유지시키는 체계로 정의했다. 와이서와 굴드의 정의와는 달리, 바이델만(Beidelman 1959)은 자즈마니 체계의 착취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배적인 지주카스트인 자즈만과 무토지 카스트인 카민 사이의 힘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전자의 후자에 대한 착취가 가능하며, 이것이 자즈마니 체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파워의 결정적 요소로 의례적인 청결-오염(purity-pollution)이 아닌 정치경제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두 견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브레만(1979)은 두 견해의 차이를 과거의 상호의존적 성격에서 최근의 착취적 국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데에서 찾고 있다. 그는 촌락경제 내에서 자즈마니 체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유와 그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3) 카스트의 의례적 측면

두몽과 포코크(Dumont and Pocock)는 카스트를 힌두이즘에 결합시켜, 인도사회를 의례적으로 불평등하게 위계화된 사회로 인식한다. 그들은 집단의 위계를 결정짓는 요소로 정치·경제적 power가 아닌 종교적 이념과 가치를 들고 있으며, 여기서의 종교적 개념이 청결과 불결(purity and impurity)이라는 위계적 대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두몽(1970)은 힌두카스트 체계를 위계성, 청결-불결, 상호의존이라는 특성들로 정의하면서 힌두사회의 위계는 결코, 정치·경제적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몽에게 사회변동의 개념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에 따르면 소위 인도인의 본질적 심성과 가치체계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두몽과 포코크는 카스트와 직업은 종교를 매개로 하여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힌두 자즈마니 체계를 '위계적 호혜성(hierarchical reciprocity)'이라 정의하고 촌락사회의 노동분화는 각자의 의례적 위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들은, 와이저와 굴드에 대해선 과거 영국식민지 정부가 인도사회를 평등사회로 낭만화한 모델과 같다고 비판하고 바이델만의 모델 역시 의례적 측면의 무시라는 시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포코크(1962)에 따르면, 자즈마니 체계에는 의례적 전문 카스트(예컨대, 이발사, 세탁인, 브라만, 사제 등)와 순수 경제전문적 카스트(직물 제조공, 대장공, 세금공 등)가 포함되어 있는데, 카스트와 직업과의 관계는 의례적 전문 카스트의 경우에만 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발사 카스트의 직업은 자동면도기와 같은 현대장비의 도입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직물제조공은 현대 면직물공장이 자리 잡은 촌락 내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발사와 직물제조공의 차이는 이발사의 경제적 측면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발사는 탄생, 사

망, 결혼 등 의례적 맥락에서 소식을 전파하는 메신저로서의 일을 하며, 그의 부인은 아이 출생시 산파로서의 의례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두몽은 농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지주, 소농, 소작인)을 의례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이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두몽과 포코크의 분석에서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농업노동자의 존재를 배제했다는 점이다. 의례적 카스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농민들(k:sa:n: 지주, 소농, 소작인)은 언급되고 있지만, 전통적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많은 하층카스트 성원들(예컨대 차마르 'chamar'의 전통적 직업은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들고, 수선하는 카스트였다. 그러나 현재는 매우 극소수만이 전통적 직업에 종사할 뿐이다)이 무토지 농업노동자로서 지주카스트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의례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분석에는 무시되어 있다. 많은 경우 농업노동자, 심지어 불가촉천민(untouchable) 농업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지주카스트 가정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가내 의례적 행사가 있을 때 의례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요약컨대, 두몽과 포코크식의 접근에는 제 카스트들간의 의례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촌락 내의 다양한 하층카스트 출신의 무토지 농업노동자와 농민집단, 특히 지주집단과의 농촌 계급관계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

4. 농촌 계급구조(Agrarian Class Structure)

한동안 농촌 계급구조의 분석은 농업경제학자나 농업경제사가들의 관심분야였고, 사회학과 사회인류학의 주 관심분야는 카스트 연구에 있었다. 대체로 70년대에서야 맨처(Mencher 1974), 베테일(Beteille 1974)과 같은 학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큰 역할을 했다.

센서스나 서베이를 이용하여 거시적 안목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인류학자들의 관심은 촌락이나 국부적인 지역 내의 제 농민계급

간의 관계 및 이들과 무토지 노동자들과의 계급관계의 규명에 있었다. 베타일은(1974) 동일 현상을 카스트 구조뿐 아니라 농촌 계급구조로도 분석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촌 계급구조는 토지 소유 및 통제와 이용에 관련된 촌락 주민들의 용어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촌락민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카스트 구조뿐 아니라 소위 계급이라 부를 수 있는 특정 다수의 범주로 구분지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벵갈(Bengal) 지방에는 ‘자민다르(zamindar: 대토지 소유의 지주)’, ‘조티다르(jotedar: 소농)’ 등의 일종의 계급범주가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의 기원은 토지세입에 관련된 행정적 용어인 경우도 상당히 된다.

사회학자나 인류학자 외에도, 상당수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혹은 경제사가들이 인도 농촌지역의 생산양식의 변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토너(Thorner 1967)의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등장이라는 주장이 논쟁의 발단이 된 후, 루드라(Rudram 1970)의 ‘자본주의적 농민’이 인도 농촌부문에 없다는 반박이 뒤따른다. 그는 인도 농촌부문을 ‘시장지향성’, ‘이윤추구’ 등을 포함한 5가지 준거로 판단한 결과 아직 농촌부문에 자본주의적 농민의 부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파트나익(Patnaik 1971)은 독립 전까지는 봉건제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이었으나, 1950년대 이래로 봉건제적 특성에서 자본주의적 특성으로의 변천 현상이 목격된다는 논지로 루드라를 비판했다. 차토파디아(Chattopadhyay 1972)는 영국 식민지 시대조차 인도 농촌부문에 소상품생산의 시작과 자유농업 임노동자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영국 지배하에서 태동한 것이라 파트나익을 비판했다. 다시 이에 대해 파트나익(1972)은 식민지 시대의 농민의 궁핍과 대지주의 고리대금업 종사, 부당한 소작료 강요 등으로 자본주의적 발전이란 있을 수 없었다고 차토파디아를 논박했다. 이후 바두리(Bhaduri 1973), 프라사드(Prasad 1974) 등의 반봉건적 생산양식(semi-feudalistic mode of production)의 주장, 알라비(Alavi 1975) 등의 식민지적 생산양식 등의 논쟁이 계속된다.

특히 동부인도(비하르 주와 벵갈 주)에 대한 연구에서 반봉건제적 생산양식의 주장이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이 지역의 지주-농업노동자 관계가 반봉건제적 연속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1) 토지체계

인도 중세 무굴(Mogul)제국시대 이래로 이슬람 중앙정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농민으로부터 토지세를 징수하는 중간계층들, 즉 자민다르(Zamindar)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토지소유를 정착(settlement: 페르시아 원어의 의미에 'collecting'이 있다)이라 부른다. 그러나 무굴시대의 자민다르는 일정영역의 토지소유권은 없었지만, 거주민들로부터 거둔 조세의 일정량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행정력과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힌두왕들을 정복한 무굴통치자들은, 각 지역의 힌두 소왕국의 왕들에게 일정량의 조세 납부를 강요했으나, 토지소유권 자체를 강요하진 않았다. 고래로부터 힌두의 토지에 대한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모든 집단들은 토지 사용권을 누릴 수 있으나 타집단에게 매매, 양도할 수는 없었다.

영국이 인도에 첫발을 내딛을 당시, 영국인의 재산에 대한 개념은 인도인들과 다른 '절대적 사유재산'이었으므로, 그후 영국이 인도에 도입하는 각종 토지제도 등은 인도인의 전통적 재산의 개념과는 매우 상이한 것들이었다. 점차 토지는 시장경제로 흡수되기 시작하여 매매가 가능하였으니, 그 결과 대다수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1873년에 식민지 정부는 '영구적 정착(permanent settlement)'이라는 계약을 ○○ 자민다르와 맺고서, 그들이 영구히 고정된 양의 세입만을 납부하기만 하면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영구적 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이 새로운 종류의 자민다르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래로부터 토지를 경작했던 소규모 경작자가 지주에 종속된 소작인으로 전락되었고, 반면 자민다르들은 고리대금업과 부당한 소작료 강요 등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업부문에 투자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폐해진 농민들과 농업노동자들은 대체할 일터를 도시에서도 구할 수 없어, 자민다르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 결과, 토지는 일부 대지주에게만 독점되고 소작인과 노동자들은 극도의 착취를 당하게 되었다.

인도 농촌부문에 농민을 범주화시키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중 많은 것들이 식민시대의 토지차지제도(land tenure system)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식민지 정부와 실 토지경작자 사이에 자민다르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중간계급이 있었으며, 이들은 그들의 소작자들로부터 규정량보다 과다한 소작료를 징수하여, 자신들의 상층 중간계층에게 일부만 납부하고 그 차액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중간계층의 급증과 농촌의 소작농, 노동자의 빈곤은 비례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 계급구조 분석

베테일(1974)은 농촌 계급구조의 연구를 위해 계급구조와 연관된 주민들의 용어분석을 강조하였다. 그는 벵갈지방의 연구에서 계급범주와 관련된 용어들을 분석하여 '계급 유형(class type)'이라 명명하였다.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에는 '자민다르와 다룩다르(zamindar and talukdar: 가장 높은 위계에 있으며 국가와 토지 경작자 사이에 있는 대지주 중간계층)' '조티다르(jotedar: 소농)' '바가다르(bargadar: 소작인)', '케트마주르(khetmajur: 농업노동자)'들이 있다. 그는 이와 같은 토착적 용어들 속에 그 지역민의 자신의 세계를 범주화하는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 용어들을 분석함으로써 농촌 계급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동일지역의 주민들을 종교, 카스트 등을 준거로

힌두-무슬림-하리잔(Harizan : 불가촉천민) - 아디바시(Adivasi : 지역 부족)으로 범주화시킨 후, 이 범주와 앞서 언급한 '계급유형(class type)' 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촌 계급구조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은 위에 열거한 계 범주들간의 관계들을 밝히는 것임에도, 베테일은 그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예컨대, 벵갈지역의 조티다르의 성격에 관한 그의 연구(1974)에는 조티다르와 그 밖의 다른 범주들, 즉 바그다르(소작농), 게트마주르(농업 노동자)간의 착취적 관계가 적절히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위 반봉건제적 생산양식론자들이 조티다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독립정부에 의해 자민다리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그동안 소농이었던 조티다르가 소작농과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과 소작료를 착취하여 부농으로 부상하게 되며, 지난날 자민다르가 보여주었던 반봉건제적 특성을 조티다르가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지이다.

3) 인도인의 심성

영국 식민지정부의 인도에 대한 정책, 제도 등은 그들의 시각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도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15~17세기 봉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준시대의 것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자민다리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존 로크의 '절대적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인도사회를 분석하여, 인도사회를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는 아시아적 전제국가로 인식했다.

이에 관련지어, 엠브리(Embree 1979)는 인도인의 토지에 대한 개념은 유럽인들의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각기 소속된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은 일정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런 권리는 자기 집단 내에서만 양도가능했다. 그러므로 인도 정치체계가 중요시했던 점은 집단간의 이러한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일이었다. 예컨대, 특정 브라만이 타

인으로부터 종교적 의례에 대한 대가로 선물받은 토지는 의례만을 집전하는 다른 브라만에게만 양도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인도인의 관심은 개인 소유가 아닌 각기 자기 집단의 권익 보존에 있었다.

영국 식민지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인도 농촌은 이용가능한 토지에 비해 노동력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힌두 왕들이 농민들에게 부당한 과세를 가하거나 핍박을 가하면 많은 경우 집단으로 도망가서 새로운 촌락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힌두 왕들의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강요는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와 같이 인도인의 재산에 대한 개념이 유럽의 것과는 다름에도 당시 식민지 행정부 관리와 학자들은 그들의 계급개념에 준하여 인도 농촌사회를 구분지었었다. 그후 인도 연구가들이 이러한 유럽적 계급의 개념을 답습하거나 그것의 영향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인도인의 토지에 대한 심성을 고려하여 더욱 통찰력 있는 제 농촌집단의 관계분석을 위해서, 인도의 전통에 근원을 둔 카스트 개념과 현재까지도 많은 지역에 봉건제적 특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후원자와 피후원자(patron-client) 모델이 적절히 적용된다면 위의 인도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 제 집단간의 관계분석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영국지배 이전에 많은 지주들이 소작인들과 농업노동자들에게 생계보장 등 후원을 베푸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들이 지적한 바 있다. 즉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배적인 카스트와 대지주들이 그들끼리 경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리니바스(1955), 브레만(1979) 등이 지적하듯 영국지배 시기부터 후원자-피후원자 관계에서 후원자의 성격이 착취적인 국면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관계에서 피후원자격인 노동자들이 최저의 생계를 위해 자진해서 부속된 노동자(attached labourer)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루드라(Rudra 1987), 바르단(Bardhan 1984), 브레만(Breman 1979)에 비해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예속화시켜 착취를 자행한다는 비판적 시각(Brass 1986, 1990)이 있으며 지금도 후원과 착취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 농촌의 다른 특징으로, 카스트구조와 계급구조가 부분적으로 중복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부농계급은 상층카스트 출신이며 소작농과 임노동자들은 하층카스트 출신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후원자-피후원자 모델(patron-client model)이 인도 농촌의 두 구조의 중복현상을 어느 수준까지는 적절하게 설명 가능하리라 본다.

5. 맺음말

인도 촌락사회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구조적 분석이 강조된 연구의 흐름과 후원자-피후원자 관계가 경제·정치적 차원에서 강조된 연구가 있다. 전자의 입장에 속하는 두몽과 포코크, 라헤자(Raheja 1988) 등은 구조적 혹은 의례적 관점에서 촌락민들 지배적 상층카스트와 기타 다른 카스트로 구분짓고, 이들간의 의례적 위계의 지속을 강조했으며, 그런 이유로 변동 연구에는 부적합한 모델이라 생각한다.

반면, 후원자-피후원자(patron-client)타입의 관계, 예컨대 자즈마니, 할리(Hali), 세피다리(Sepidari)체계에 역점을 둔 연구들은 의례적 측면보다 카스트간의 경제·정치적 관계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촌락의 전통적 경제관계들이 해당 촌락 외의 직업획득 기회신장, 현금경제와 근대 행정체계의 도입 등으로 점차 촌락의 수준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동승하여 인도의 많은 농촌부문에 자본주의적 경영농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농촌세력인 이들의 카스트적 지위는 대체로 높은 카스트가 아닌, 농업만을 주업으로 했던 자트(Jat), 소, 양을 키우는 자들 예컨대, 야다브(yadav) 등의 후진된 카스트(backward caste)이다. 이들

의 경제적 부는 현대적 상황의 변화에 기인한다. 지난날 소치기 카스트보다 지금의 그들 후손들은 우유에서 나오는 유지 품목(버터, 치즈, 우유 등)의 시장판매를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역시 농업 부문에서의 임노동자 고용과 더불어 예속된 노동자(bonded labourer)를 보유하고 있어 순수한 유형의 자본가적 기업농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도 농촌경제에 확실한 것 중의 한 가지는 지난날 자신의 피후원자인 농업노동자나 소작인에게 전통적인 경제적 의무감을 느꼈던 많은 지주들이 이제는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려 하며, 피후원자들도 지주계층들의 전통적 의무 강요를 착취나 핍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부 학자들이 카스트로부터 계급분석으로 변이과정이라 인식하는 데 반해, 필자는 인도의 농촌부문의 보다 적절한 이해는 카스트적 위계와 농촌계급적 위계의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농촌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카스트구조나 농촌 계급구조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에만 얽매이지 않으려면 보다 기술적(descriptive)이면서 분석적인, 매개체적(intermediate)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메이어(Mayer, 1968), 반즈(Barnes 1954, 1962), 보트(Bott 1957) 등이 복합사회 연구에 사용했던 ‘네트워크(network)’ ‘의사집단(quasi-group)’ ‘행위세트(action-set)’ 등의 아이디어를 인도 촌락사회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카스트구조와 농촌 계급구조를 통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Alavi, H.
 1975 "India and the Colonial Mode of Production," in *E.P.W.* August (special number) 10(42).
- Bailey, F. G.
 1957 *Caste and the Economic Frontier*,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9 "For a Sociology of India?," in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No. 3.
 1963 "Closed Social Stratification," i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4 (1).
- Bardhan, P.
 1984 *Land, Labour and Rural Poverty*,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Barnes, J.A.
 1954 "Class and Committees in a Norwegian Island Parish," *Human Relations*. (7).
 1962 "African Models in the New Guinea Highlands," *Man*, 62.
- Beidelman, T. O.
 1959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ajmani system," *Monograph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8.
- Beiteille, A.
 1965 *Caste, Class, and Power: changing patterns of stratification in a Tanjore village*, Bombay: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Studies in Agrarian Social Structure*,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Bhaduri, A.
 1973 "An Analysis of Semi-Feudalism in East India," in *Frontier*, vol. 6.
- Bott, E.
 1957 *Family and Social Network*,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rass, T.
 1986 "Unfree Labour and Capitalist Restructuring in the Agrarian

- sector: Peru and India,"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14, no. 1.
- 1990 "Class Struggle and Deproletarianisation of Agricultural Labour in Haryana," *Journal of peasant studies*, Autumn.
- Breman, J.
- 1979 *Patronage and Exploitation: Changing Agrarian relations in South Guijarat*, Delhi: Manohar.
- 1984 *Labour Mobility in Rural Asia*, Mimeographed.
- Chattopadhyay, P.
- 1972 "On the questions of the Mode of Production in Indian Agriculture: A preliminary note," *E.P.W.*, vol.7, no.13.
- Cohn, B.S.
- 1988 *An Anthropologist among the Historians and other Essay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Dube, S. C.
- 1955 *Indian village*, Bombay: Allied Publishers Private Limited.
- Dumont, L.
- 1970 *Homo Hierarchicu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Dumont, L. & Pocock, D. F.
- 1957 "Village Studies," in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1.Embree, A.T.
- 1979 "Landing in India and British institutions," *Land control and Social Structure in Indian History*, R.E. Frykenberg ed., New Delhi: Manohar.
- Gould, H. A.
- 1958 "The Hindu Jajmani System: A case of Economic Particularism," *The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vol.14.
- Leach, E. R.
- 1960 "Introduction," in Leach(ed.), *Aspects of Caste in South India, Ceylon and Northwest Pakist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ine, H. S.
- 1871 *Village Communities: East and West*, London: J.Murry.
- 1906 *Ancient Law*, London: J.Murry.

Majudar, D. N.(ed.)

1955 *Rural Profiles*, Lucknow, Ethnographic and Folk Cultural Society.

Majudar, D. N.

1958 *Caste and Communication in an Indian village*,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Marriott, M.

1955 *Village Ind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yer, A. C.

1960 *Caste and Kinship in Central India: A village and its Reg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The Significance of Quasi-groups in the Study of Complex Societies," *The Social Anthropology of Complex Societies*, Micheal Banton ed.,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Mencher, J. P.

1974 "Problems in Analysing Rural Class Structure," *E.P.W.*, vol.9, no. 35.

Metcalf, C.

1830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in the House of commons," *Evidence* 3. Revenue.

Opler, M.

1956 "The Extension of an Indian village," *Journal of Asian Studies*, 16 (1).

Panikkar, K. M.

1955 *Hindu Society at the cross roads*, Bombay: Asia Pulishing House.

Patnaik, U.

1971 "Capitalist Development in Agriculture: A Note," *E.P.W.*, vol.6, no. 39.

1972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Agriculture," *Social Scientist*, Sep.2.

Pocock, D. F.

1962 "Notes of Jajmani Relationships,"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6.

Prasad, P.

1974 "Reactionary Role of Usurers' Capital in Rural India," *E.P.W.*, vol.

9, no. 32, 33 and 34.

Raheja, G. B.

1988 *The Poison in the Gif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udra, A.

1970 "In Search of the Capitalist Farmer," *E.P.W.*, vol. 5, no. 26.

1987 "Labour Relations in Agriculture: A Study in Contrasts," *E.P.W.*, vol. 21, no. 17.

Srinivas, M. N.

1952 *Religion and Sociology Among the Coorqs of South India*, Bombay: Oxford University Press.

1955a "The Social Structure of a Mysore Village," *Village India*, Marriott, M.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5b *Indias Village*, Bombay: Media Promotors & Publishers PVT. LTD.

1987 *The Dominant Caste and other Essay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Stein, B.

1968 "Social Mobility and Medieval South Indian Hindu Sects," *Social Mobility in the Caste System in India*, J.Silverberg ed., Hague: Mouton

Thapar, R.

1974 "Social Mobility in Ancient Indian Society," *Indian Society: Historical Probings*, R.S.Sharma ed., New Delhi: Peoples Publishing House.

Thorner, D.

1967 "Capitalist Stirrings in Rural India," *The Staremen*, Calcutta, Nov.1, 2, 3 and 4.

Wiser, W. H.

1969 *The Hindu Jajmani System*, Lucknow: Lucknow Publishing House.